

최경주 전북 청소년센터 설립 1억 기부



‘탱크’ 최경주(41·SK텔레콤)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‘1318 해피존’ 전북 센터 설립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. 최경주는 21일 제주도 펁크스 골프장에서 열린 SK텔레콤오픈 3라운드를 마친 뒤 대회장 내 미디어센터에서 ‘SK텔레콤과 최경주의 아름다운 동행’ 전달식을 열었다.

홍혜란, 퀸엘리자베스콩쿠르 우승

